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http://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발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제목 : 학생인권 시민 연속강연회 보도 요청

날짜 : 2011년 2월 25일(금)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7-214-3550)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입니다. 저희 단체는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7일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서울본부에는 서울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총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해 있습니다.

2. 서울본부는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학생인권에 관한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체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모으는 한편,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의 실제 현실과는 달리, 서울시의 차별 금지 정책 등 학생인권정책의 부작용이 특정한 방향으로 부풀려지면서 교육청의 정책이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조차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도 합니다.

3. 이에 학생인권에 관한 부풀려진 오해를 해소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강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 학기를 앞둔 교사, 학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4. 첨부한 기획안을 참고하시고, 이번 특강에 대한 생중계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첨부자료 : 강연 기획안

#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교육의 오늘" :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기획안

## ■ 기획의도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 유하, 「학교에서 배운 것」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의 차별금지 정책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교육의 주춧돌로 삼고자 하는 학생인권 정책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보다 행복한 교육을 선사함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된 폭력적 문화를 비폭력의 문화로 전환하는 토대를 공교육에서부터 만든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정책은 공교육의 현장을 사람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도 뿌리 깊고, 경쟁교육의 심화로 인해 사람 중심의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흐름은 큰 물줄기를 이루기에 버겁습니다. 한편에서는 학생인권이 교사와 학생의 대립을 만들어낸다는 오해가 널리 자리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학생인권 관련 사회적 논의를 긍정적 방향으로 성숙시키는 한편, 몇몇 교육청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정책이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지혜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인권 관련 시민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 강연회 구성

##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교육의 오늘"

### 학생인권 시민 연속 특강

#### □ 모시는 이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다”**

: 혁신학교-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에 담긴 교육철학, 학생의 인권과 자치 역량 강화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3/14(월) 오후 7시 / 서대문구청 강당

##### ○ **이범희 용인 흥덕고 교장 “혁신학교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 수업혁신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혁신을 일구어내고 있는 흥덕고의 사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 3/16(수) 오후 7시 / 송곡중학교 강당

##### ○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폭력 트라우마와 체벌 없는 교육”**

: 학창시절 폭력의 경험이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로서 ‘체벌 없는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 3/22(화) 오전 10시 / 성동교육청 4층 강당

##### ○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노동의 거울, 학교”**

: 학교는 노동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 사회 반(反)노동 문화는 학교의 역할과 상관 없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녀의 성적이 아닌 학교문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이유를 살펴본다.

: 3/23(수) 오후 7시 / 세종대

##### ○ **백창우 시인/작곡가 “아이들 감성을 꽃피우는 노래 이야기”**

: 시와 노래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성을 꽃피게 만드는 부모와 교육의 역할을 짚어본다.

: 3/31(목) 오전 10시 / 흥사단 3층 강당

□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지역 교육·시민단체 공동 주최

□ 후원 : 경향신문, 오마이뉴스